

#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평남땅 온천벌의 농사작황을 돌아보는 아버지수령님이다.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것은 그의 한평생 소원이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수령님께서 해방후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속망을 풀어주시고 물격정없이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 념민도 헤아리시어 온 나라의 대지에 관개수 홀러님치도록 하시었다. 주체46(1957)년 10월 어느날 기양관개공사장을 찾았을 때에도 수령님께서 눈에 물을 뿜 계획을 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기양관개물을 밭에도 널리 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설계를 고려하도록 하시고 가물에 시달리던 우리 나라 농촌실정으로 보아 논과 밭에 관개체계를 세우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대해서와 물을 어떻게 리용할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남관개, 어지돈관개, 기양관개를 비롯한 물길과 연풍호, 태성호 등 인공호수에 의한 관개망이 그물처럼 펼쳐져 농민들은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다. 산간마을과 어촌을 찾으시여서도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수령님이다. 한평생 오로지 인민들의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로고, 그 은혜를 오늘도 온 나라의 대지는 길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며》

방글라데슈신문이 특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14일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즈》가 특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 지지도하시는 사진들을 모시고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고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었다. 해방직후 주석께서는 인구

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세기적속망을 헤아리시고 토지개혁부터 실시하시어 그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주석께서는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다 좋은 태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농장벌을 찾으시어는 그 나날 언제나 농민들의 생활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조선인민은 80고령에도 언벉

# 위인칭송열기

남조선에서 더욱 고조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을 퍼력한 글들이 끊임없이 오르고있다. 그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인 우리 공화국

면이 있는 한 동포를 만나게 되었다. 외부세력에 의해 긴장한 조국정세에 항시 위구심을 갖고있던 그는 랑동포에게 요즘 조국동포들의 민심은 어떤가고 물었다. 랑동포는 그에게 조국에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실사 천만대적이 넘버든다 해도 두려움없이 대결할 기세에 충천해있는것이 조국인민들이라고 하고나서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반

# 조국을 위하는 몸과 마음

드시 이긴다는것이 조국동포들의 마음이라고 했다. 조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나날 그가 때때로 절감한것이였고 누구나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높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조국동포들과 승결을 함께 한 고였다. 때문에 그는 중국에 있는 집을 다녀올 때마다 이웃들이 사자판에 갔다는 사람처럼 대하며 조국에서 전쟁이 일면 기업이 무사할가 하고 우려할 때에도 조금도 랑망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끄떡없다는 조국동포들의 자신만만한 기세가 그의 마음

#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태양

## 통일애국의 길로 이끄시어

제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라 하면 한때 남조선에서 정계나 사회계 그리고 군부를 비롯한 여러 고위직에서 활동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자적인 단체이다. 제북인사들 가운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의거한 사람들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있었다. 남녘의 여러 인사들이 공화국에로의 입북의사를 표명했을 때인 주체39(1950)년 9월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현재 서울에 있는 이름있는 애국적계급인사들이 우리 공화국정부를 지지하여 평양에 들어올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무사히 들어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처에는 급변하는 형세에 대처하여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을 구원하시려는 숭고한 민족애와 은정깊은 사랑이 담겨져있었다. 수령님의 보살핌속에 무사히 의거입북한 최동오선생은 자기 동료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전 시수송이 매우 긴장함에 불구하고 하찮은 우리들을 위하여 고금송차와 특별열차까지 내어 안전하게 입북후퇴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세상만고에 이런 고마운 은덕이 또 어디 있었겠소?》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입북해온 인사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

라 관심하시었다. 년로한분들에게는 바지저고리가 편하다고 하시며 조선옷일식 그리고 양단이부자리를 비롯한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보장하도록 하시었다. 전후에는 그들모두를 평양의 경치 좋은 곳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금강산을 비롯한 이름난 명승지들과 온천들에서 관광을 하고 치료도 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나날이 더해만 가는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에 감격한 그들은 자기들도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주체45(1956)년 5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여러 제북인사들을 친히 만나시었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 오신 수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시며 그들의 건강상태도 일일이 물어주시었다. 그리고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전변들과 남조선사회정치상태,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려주시었다. 수령님의 말씀에 접한 그들은 남조선에서 련공합작과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중에는 지난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고 공화국

을 반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고 말씀하셨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애에 죄를 지었다 해도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 그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사회적 명예와 자경도 그대로 보존해주며 공로와 능력에 따라 새로 세워질 련합정부에도 참가시킬것이라고 친명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며 그들은 남조선정계인사들로 조국통일실현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조직하면 하는 소원을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제북 전 남조선정계인사들로 조국통일실현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조직할 의향을 표시하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데 대하여 답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전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사회당, 민주공화당, 민주국민당, 건국청년회 등 정계 정당, 사회단체에 소속되었던 대표급인사들과 기타 정계, 사회계, 군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로 제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가 결성되게 되었다.

그들은 나라의 평화통일축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한 입북인사들의 자적인 조직으로 시의 제북의 결성취지와 성격을 밝힌 다음 분별로 말미암아 민족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떨쳐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제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결성후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제북인사들을 만나시어 그들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회원들이 년로하여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높이 평가하시며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유가족들을 잘 돌보도록 이리시었고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조완구, 최동오선생을 비롯한 제북인사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어 그들의 삶이 빛나도록 보살펴주시 수령님이다. 사상과 리념, 당파와 정경,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리지 않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손잡으시는 수령님께서 계시어 그들은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생의 흔적을 남길수 있었다. 오늘도 제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와 그 회원들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위업성취를 위해 공화국인민들과 더불어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고있다. 본사기자 최석현

동 에 변 켜 서 에 변 켜

그날은 두해전 2월 8일이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생산자들은 크게 놀랐다. 엿그제 토요일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텐을 알고 있었는데 동해지구에서 서북단을 향해 1000여리를 달리시어 하루 건너 월요일에 락원땅을 찾으신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다녀가신지 석달밖에 되지 않지만 대형산소분리기제작문제때문에 또다시 그곳을 찾으신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산공정건설에서 대형산소분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필요한 설비들은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락원에서 만든것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그이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해결을 위해 그길로 락원기계련합

기업소를 찾으시었다. 가신 길에도 강행군속도였고 현지지도 역시 불이 번쩍 이는 강행군현지지도였다. 그이께서는 공작 산소분리기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흥남에서 비료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산소분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하여 흥남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도록 생산자들을 고무격려하셨다. 산소분리기생산을 생명으로 여기고 최단기간내에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후 그이께서는 락원에 이어 2월말에만도 원산농업종합대학이며 원산의 공장들과 함경북도의 김책체첸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회령의 여러 부문 그리고 자강도의 만포를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을 중흥무진하시며 동에 변 켜 서에 변 켜 일행천리 초강도강행군장정을 이 어가셨다. 본사기자

《선군혁명경도의 길에서》

지역기후 인터넷홈페이지 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사진을 모시고 《선군혁명경도의 길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경도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인민생활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사업하도록 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마련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실현해나가는 김정일령도자의 불굴의 의지는 그이의 현지지도로정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그 어떤 강추위와 무더운 날씨, 비바람과 눈보라도 그이의 현지지도강행군을 막지 못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이의 선군혁명경도는 조선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도처에서 대교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고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되거나 새로 건설되었다. 이민주권을 좌우명으로 여기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경도는 오늘 조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있다 한다. 인터넷에 굶이치는 위인칭송의 열풍은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경모하며 따르는 남녘인사들이 날을 따라 더욱 뜨거워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율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민족적공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애국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화국에서는 지난날 력사의 풍운속에 퇴색되거나 잊혀지고 지어는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하나의 민족문화유적들이 자기의 력사적 가치를 되찾고 사람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귀중한 민족적재보로 되고있다. 이것은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끝없는 로고와 보살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81(1992)년 5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개성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아버지수령께서는 왕건왕릉을 비롯한 력사유적

들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 고려박물관을 찾으셨을 때였다. 천년의 교육력사를 가지고있고 고려성균관의 여러 건물들에 전시된 고려시기의 발전력사를 보여 주는 유적유물들을 보여주며 주석께서는 성균관을 지 금처럼 고려박물관으로 꾸려

한 산중턱에 있는 왕건왕릉은 세월의 이기속에 퇴색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있고 그릉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였다. 오래도록 통을 살펴보신 주석께서는 이윽고 고려조조의릉으로서의 너무 협소하다고 하시며 왕건이 우리

에는 손수 《고려대조왕릉개건비》라는 비문도 써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고려대조왕건왕릉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찾고 통일조국의 시조왕의 품격에 맞게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민족의 시조왕인 단군릉과 고구려의 동명왕릉, 대성산의 평

#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오늘은 조국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부강조국을 받드는 기업가로 애국의 길을 걷고있다. 《흔히 기업가들은 돈을 버는것을 재미로 알고 기업에서 소득이 크면 성공이라고 한다. 나에게서 성공에 대해 말할한다면 버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지심을 바쳐가는것을 통해 조국이 아는 민족의 딸로 사는 긍지를 가지게 되는 때이다.》 랑동포의 애국충정에서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다시금 새기게 된다. 본사기자 리 설

놓고 이 건물에 고려시기의 최고교육기관이었다고 설명하고, 고려시라는 의의가 없다. 고려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을 하나 새로 내오도록 할 데 대해 지적하시었다. 그이의 왕궁터였던 만월대와 신교로, 표충비를 차례로 돌아보시며 문화유적들을 잘 보존하도록 할데 대해 거듭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왕건왕릉으로 향하시었다. 개성의 혜선리의 자그마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인것만큼 그의 통을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고 통을 개건하는데서 나는 문제들도 손수 가르쳐주시었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왕릉형성산과 돌조각축소모형을 몸소 보시고 력사유적유물을 개건하거나 복원할 때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킴으로써 할데 대해 지적하시었고 왕건왕릉개건공사가 끝났을 때

법사와 강계의 인공류 등 오늘날 세월 력사의 이기속에 묻혀있던 력사유적들이 자기의 모습을 되찾고 사람들에게 민족의 슬기와 애국의 넋을 북돋아주는 오늘의 현실은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전통, 문화도 숭고한 민족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의 손길아래서만 빛을 뿌릴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명금룡



# 시류음 못 잊을 11월 24일에 드리는 노래

—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현지시찰 15돛에 즈음하여 —

## 판문점의 아침

아침이었다  
열다섯해전 11월 24일  
우리 장군님  
여기 판문점을 찾으시어  
생각깊이 걸으시던 때는

진운이 서린 땅  
한어름에도 서리가 끼는 곳  
그랭기어린 하늘에  
품에 안고 오신것인듯  
아침해가 뜨겁게 빛을 뿌렸다

쏟기시는 자욱자욱  
아침이 함께 갔어라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려보던  
수령님의 그 친필비에도  
통일각, 판문각에도

게신 시간은 얼마였더냐  
그 아침에  
수령님 통일에 바쳐오신 한평생  
천만날 천만밤을 다 안아  
장군님 가슴을 적시셨나니

말해다오, 판문점이며  
분별이 잠 못드는 아픈 밤이라면  
통일은 그밤을 불사를 아침이어서  
분별의 상징 이 땅을  
그이 아침을 안고 걸으셨던가

삼가 비앞에 서면 울려와라  
뜻깊은 친필 환희환희에  
통일의지 새기시던 장군님  
수령님의 유혼 받들어  
거이 조국을 통일하시겠다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

아, 대를 이어 안으신  
조국통일의 엄숙한 사명감에

우리 장군님  
억척같은 맹세의 반석위에  
수령님 친필비를 더 굳건히 세우신  
판문점의 불타던 아침이여

그날부터 력사의 그날부터  
그 의지 그 맹세로

## 이 날은 우리 마음에

— 한 남녘동포의 수기에서 —

11월 24일 이날은  
마음속 뜨겁게  
보급장군님 오시는 날  
오셔도 우리 남녘민중 마음에  
통일의 어버이로 오시는 날

어저 잊을수 있으랴  
15년전 이날을  
판문점, 분별의 상징인 그곳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  
몹소 찾으셨던 장군님을

그분의 영상 신문에서 비오며  
우리 가슴 적시지 않았던가  
애오라지 통일을 위해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시고  
분리선앞까지 나오신 그 장거에

누구나 잠들지 못했어라  
깜깜하던 숲의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솟은듯  
그분이 안아오실 통일세상  
환희에 겨워 견고 걸어보며

그날 남녘은 우리 민중은

통일을 벅차게 열어온 세월  
6.15의 아침에도  
10.4의 아침에도  
그날의 해가 솟아올랐나니

오늘도 찬란한 판문점의 아침이여  
11월 24일 그 아침은  
수령님 한평생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장군님  
삼천리 7천만겨레에게 펼쳐주실  
아아, 통일의 아침이여라!

이 땅에 단 한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절세의 예주자를 보았고  
원수들은 발밑에 원자란이 터진듯  
벌벌 떨며 전를했나니

빨치산의 아들 민족의 어버이  
그분이 아니시다면  
어느 누가 통일을 위해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대결장  
그 침에한 곳에 나설수 있으랴

우리 겨레를 살리시려  
민족의 숙원 통일을 이룩하시려  
통일의 최전두에 서신 장군님  
세월은 흘렀어도 그 세월위에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모습이여

일년 열두달 어느날일들  
마음속에 그이 아니 계시리만  
오, 11월 24일 이날은  
남녘의 우리 마음속에  
장군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날!  
통일의 어버이로 오시는 날!

## 오신 길, 가신 길은

지금도 이 가슴 불태워라  
어이 우리 장군님  
새벽도 이른새벽에  
평양을 떠나시어  
여기 판문점에 오셨던가

총구와 총구를 맞댄 곳에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가는 초병들  
장한 그들을 어서 안아주고싶어  
어둠속을 누비며  
민 수백리길을 달려오셨던가

오늘도 판문점에 력력한  
그날의 자욱 더듬으니  
뜨거워라, 그이 마음  
수령님의 유혼 조국통일  
그 철박함에 잠 못드시다  
잠 못드시다 떠나오신

그 녀원으로 오신 길  
수령님 친필비앞에 이어놓으시고  
판문각로에라도 이으시며  
통일의 의지 다지시던 장군님

판문점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40km밖에 안된다

우리는 서울이며 부산, 제주도에도  
다 나가보아야 한다고  
심장을 두드리던 그 말씀이여

아직은 통일이 안되어  
여기 판문점에 멈춰서시었어도  
마음의 발걸음은 남해로 달려섰던가  
남녘겨레를 품에 안으시고  
넘치는 정 부어주셨나니

그 마음으로 떠나시었다  
수령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실 결심  
판문점에 남기고  
아니, 가슴에 지니시고

더욱 힘있게 더욱 보폭이 크게  
그이 이어가시는  
성스러운 통일장정의 길  
비쳐오는 통일의 렬명을 안고  
7천만은 신심에 넘쳐 따라섰어라

아, 그날 장군님 오신 길은  
평양에서 여기 판문점까지여도  
아아 그날 장군님 가신 길은  
삼천리 한끝 제주도까지여라!

## 설레여라 판문점의 전나무여

김태룡

11월의 맑은 하늘  
푸르른 아지에 한껏 떠날고  
판문점에 서있는 전나무여  
너의 무성한 잎새처럼  
바라보는 이 마음 생각도 많아라

분별의 아픔이라오  
가장 쓰라린 아픔 흐르는 이곳에서  
고통의 년륜만을 감아오던 너

물노니 지난 15년  
통일로 걸어온 벅찬 그 세월  
돌기돌기 장하게 새기지 않았더냐

분별을 끝장내실 용단을 안고  
판문점에 오셨던 우리 장군님  
통일의 의지를 안고 떠나신  
오, 그날부터 그날부터  
그이 펼쳐온 해와 해를

뜻깊은 년륜으로 감아온 나무여

흐르고 흘러온 해와 해  
너 격정으로 아로새길 때  
우리도 함께 감아왔더라  
장군님 안아오신 통일 6.15  
그 세월을 우리 삶에 우리 생애에

헤어져서 간간세월을 넘어  
북과 남의 겨레가 부둥켜안은 상봉  
그 뜨거운 눈물로 적신  
가슴벅찬 한해한해가  
통일의 주추돌인양 쌓이고

반세기나 넘도록 가슴치며  
오가지 못하던 북녘과 남녘  
달을 이어 해를 이어  
꿈같이 오고가던 그 감격  
통일사를 새롭게 장식했어라

아, 판문점의 푸른 전나무여  
너는 어느 돌기에 간직했고  
우리 어느 년륜에 새기었더냐  
우리 장군님  
6.15시대를 더 활짝 꽃피우시려  
이 땅에 안아오신 10.4선언은

너 기쁨에 설레이지 않았더냐  
우리도 감격에 목에였어라  
나는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그날에 판문점에 남기신 맹세  
세월위에 빛내가시는 장군님 우러러

해가 뜨고 달이 솟는 그 세월  
누구도 멈출수 없듯  
우리 장군님 해와 달을 띄워  
안아오시는 통일세월  
반통일의 광풍도 막을수 없으려니

너는 이제 새기려라  
15년 그 년륜앞에 통일의 새 년륜을  
우리도 마중하리라 통일의 새날을  
그날을 그리며 그날을 안고  
아, 설레이는 판문점의 푸른 전나무여

# 판문점시찰과 통일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이 있는 때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이날을 맞으면 그리하지만 올해에는 판문점시찰의 길에 어떤 평강의 송고한 통일세계가 더욱 사무치게 어려와 걱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장군님께서 왜 찬바람부는 11월의 그날에 대결의 상징인 그 위험천만한 판문점에 나가시였는지, 판문점시찰의 길이 우리 겨레, 우리모두에게 새겨준 진리는 무엇인지.

락엽진 거리를 걷고 또 걸으리라 장군님생각이 더 나고 이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이 걸으신 판문점시찰의 길이 더욱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통일운동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통일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로 얽혀져있고 통일을 떠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해 말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감옥문을 나와서도 통일운동단체와 관계를 가지며 통일투쟁을 벌려온 나는 요즘 우리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민족이 갈라져 60여년, 아직도 통일의 앞길에는 헤쳐져야 할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끈질긴 대결책동, 분별의 긴 세월이 만들어낸 민족내부의 불신과 적대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상반되는 두 사상과 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외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는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라찾는 싸움이 조선민족 대 외세와의 대결이였다면 오늘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해 외세와도 싸우고 내부의 갈등도 풀며 대안결도 이루어야 합니다.

대국들에 둘러싸인 조선반도의 지정학적관계는 예전고대로이고 우리 나라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침략야욕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기에 이 세상에 길은 많아도 외세가 갈라놓은 이 땅, 이 겨레를 하나로 되게 하는 통일의 길처럼 어렵고 험거운 길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바로 조선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있으면서도 것처럼 어려운 통일문제해결에서 돌

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애국의 결단이고 뜻깊은 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 1990년대 중엽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여있던 준엄한 시기입니다.

당시 남조선에서 감옥문을 나와 《말》잡지사에서 일하고있던 나는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매국세력이 우리 민족의 통일노력에도 전하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었습니다.

내가 거처하고있던 서울의 중구일대에서도 부친전생연습이 터뜨리는 광적인 포사격소리가 매일같이 울려왔고 사람들은 전경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가 하여 불안이 떨고있었습니다. 북남관계를 전면폐쇄어로 몰아간 《문민정권》은 《대규모난민이 밀려내려올수 있다.》는 일빠진 소리를 늘어놓으며 《비상국무회의》에서 《전시법령》을 채택하고 《계엄령》과 《비상동원령》을 내리는 연속까지 벌리었습니다.

서방세계와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붕괴》설이 그칠새없이 나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기초에 서있던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떠도는 온갖 망설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으시였습니다.

아니다, 조선민족이 나아갈 길은 다시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갈 길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보장되고 겨레의 운명을 지킬수 있는 가장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통일의 길이라는것을 천명하시려고 장군님께서는 것처럼 위험한 판문점시찰의 길을 걸으신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장군님만이 지니신 민족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활화산같은 애국의 열정이 함축되어있습니다.

하기에 15년전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결과 전쟁기운이 짙게 감도는 판문점에서 노예가 되겠다는,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군위병이 되겠다는 하는 시대적 엄숙한 물음을 제기하시면서 자주주호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시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곳 판문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신 여기에도 통일을 하자면 다른 길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온 겨레가 찬동하는 바로 이 길, 조국통일3대헌장이 밝힌 길로만 가야 한다는 평강의 확고한 신념이 빛받치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총책을 지니시고 최전연 판문점에까지 몹소 나가신 장군님의 애국의 발걸음은 우리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백두령상의 추상같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판문점시찰은 우리의 심장에 칼을 박았다.》, 《당장 발밑에서 북조선의 원자란이 터지듯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미군장교들이 비명을 지른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조선반도와 행성을 뒤흔든 선군명령의 판문점선언은 그후 자주통일의 넓은 길인 6.15시대를 활짝 펼쳐놓았습니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어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조선민족의 목소리입니까.

어제날 힘이 약해 《약소국》의 실음에 눈물짓던 우리 겨레, 외세에게 이리저리 찢기우고 국권을 빼앗기다 못해 참혹한 민족분열을 강요당해야 했던 수난의 민족, 그 조선민족이 세기의 분수령에서 세계를 향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한다고 당당히 선언한것입니다.

비록 여섯글자밖에 안되지만 여기에는 민족의 생명인 자주되고 통일도 있었고 평화번영도 있습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먼 앞날의 민족운명개척의 길도 우리 민족끼리에 있고 세계에 펼쳐질 통일강국의 위용도 이 여섯글자가 벌써부터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던 감동의 그 날들이 되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민족의 최대숙망을 풀어주시려고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준비하시다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

들어 민족분열 55년만에 평양상봉을 마련해주시는 장군님이십니다. 그이께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몹소 비행장까지 마중나가시어 평양에 오는 김대중 《대통령》을 따듯이 맞이하셨고 어렵고 두려운 길을 용케 오셨다고 고무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TV로 력사적인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아니 서울, 광주를 비롯한 온 남녘의 인민들이 격정과 기쁨의 탄성을 터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격하여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녕 그 순간은 겨레의 가슴속에 반세기나마 응어리져있던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 쌓인 감정이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 불날의 눈석이나냥 녹아내리고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손을 맞잡은 감격의 순간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장군님 열여주신 판문점길을 따라 남조선의 로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왔습니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세계적으로도 군사적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남조선의 력대 어느 《대통령》도 감히 나와볼 엄두조차 못낸 판문점.

그 위험천만한 판문점길을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헤치시고 6.15의 넓은 길로 이어놓으시어 후날 남측 《대통령》도 마음놓고 분계선을 넘은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도하며 남조선의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이 《남북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졌다.》, 《김대중대통령은 하를로 오고 로대통령은 이번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로로 오신데 의미가 있는것 같다》고 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발언은 주목할 부분이다.》, 《2007년 10월, 《평양상봉의 길을 따라 분별의 장벽이 터지고 하늘길, 배길, 땅길 이 열렸습다.》, 《막혔던 북남관계가 트이고 각 분야에서 화해와 협력의 넓은 길이 열렸습다.》

길은 사람이 오고가야 열리고 다져집니다. 한쪽을 나는 혈육이면서도 분계선이 가로막아 오도가도 못하던 우리 겨레가 장군님 놓아주

신 6.15의 《통일오작교》를 따라 북과 남을 오고가던 환희로운 풍경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 나날 남녘인민들이 꿈에도 그리보던 천하명산 금강산을 마유크 돌아볼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의 지뢰와 철조망도 걸어내고 료로관광길을 크게 내도록 해주셨고 멀리 공해로 에둘러 금강산을 오가던 남측관광객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곧추 들어오도록 조치까지 취해주신 장군님의 코나큰 그 은정.

이것이 좋은 무려 190여만명에 달하는 남녘동포들이 통일전에 가는 못 분다던 금강산을 와본게 아닙니다. 금강산이 지척이어서 남녘겨레가 3 550차에 걸쳐 관광길을 다녀간것은 더우기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장군님 남녘동포들에게 배부신 사랑의 관광길입니다.

원한의 분계선에 의해 끊어졌던 북과 남의 레루가 다시 렬결되고 렬차시범운행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질 때 기쁨과 감격에 울고 웃은것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닙니다. 《통일렬차》가 달린다 부산행렬차 달린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목욕과 부산, 평양과 신의주에로 기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들 통일의 그날을 고대하던 온 겨레가 환희의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후날 한 일문에서 들은데 하면 철도련결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서해선뿐아니라 동해선철도도 렬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않으면 조선땅이 찢기러질수 있다는 해학적인 말씀을 하시며 북남철도련결의 넓은 길을 열여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랑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남녘동포들도 볼수 있게 관광의 길을 열여주시어 근 1만명에 달하는 남녘동포들이 평양에 와서 《아리랑》을 보는 최한한 광경도 펼쳐졌습다.

민족을 담은 민족의 운명을 담은 어제날의 수난의 아리랑이 행복의 아리랑, 통일아리랑으로 울려 퍼지고 기쁨의 춤바다가 펼쳐지던 감동의 그날들에 나는 남녘에 두고왔던 안해를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행운도 지어줍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다시 만나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서울의 안해, 그가 꿈같이 나타나 상봉의 기쁨에 눈물을 적시며 6.15가 제

이끌어주시는분, 바다같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민족의 각이한 계층모두를 차별없이 품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대오에 내세워주시는분, 빨치산의 정신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최대의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며 제국주의의 악랄한 반통일공세를 선군바람으로 락멸처럼 훑내버리시는 민족의 강한 지도자, ...

민족의 어제를 보아도 오늘을 보아도 7천만 우리 겨레를 통일의 저 언덕으로 이끌어갈 렬도자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 뿐이십니다.

별이 어두울 때 더욱 빛을 뿌립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이 시련을 겪고있는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따르는 민족의 마음과 지향은 날로 더 뜨거워지고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덤하게 《금번사태》설을 내둘러도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에 미쳐날뛰던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선군의 드센 위력에 혼비백산하고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끝끝내 엇서나가는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남쪽의 《실용정권》의 가공한 처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세가 좋은 때에도 6.15시대를 이끌어주시는분 장군님이시고 정세가 불리할 때에도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평등선언과 10.4선언이라고 하시며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분도 장군님이십니다.

통일의 길은 다룬데 있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곧 민족이 가야 할 길이고 통일의 길입니다.

지금도 불멸의 통일친필비가 솟아 빛나는 판문점에 가 있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 그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지막한 그 언덕에 서시어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는것만 같고 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어 분별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꿀 애국의 의지를 천명하시던 그날의 장군님모습이 어찌와 저절로 눈굽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수령님의 통일한생이 집약되어 있고 장군님의 통일결심어린 의지로 새겨진 잊지 못할 판문점.

그 언덕에 서면 통일이 보입니다. 온 겨레가 일제안고 기쁨의 춤을 출 통일삼천리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비전향장기수 김경구

#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대응할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추고 있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피괴군부호전광들은 23일 오후 1시부터 조선서해 5개섬지역과 그 주변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 길에 들어섰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피뢰합동참모본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지휘기관들과 타격비행대, 함선집단들, 포병부대들을 포함한 술한 무력이 동원되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 역량도 이 전쟁소동에 가담한 상태이다.

군부호전광들은 이번 연습의 목적이 우리에게 그 무슨 연평도포격전의 희생과 교훈을 상기시키고 제놈들의 《완벽한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일단 우리가 군사적행동을 개시한다면 룽, 해, 공군의 《합동전력으로 북의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들을 포함한 각급 제대별 지휘소들까지 단호히 응징할 의지를 과시》하는데 있다고 무덤하게 떠벌이고있다.

지난해 연평도포격전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군대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공화국령해에 감히 선불질을 해온 도발자들에 대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포격전 1돛을 계기로 응당한 교훈을 찾음대신 오히려 우리를 걸고 대규모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새로운 정치군사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정세가 어떻게 흐르는지, 제 집안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무모하게 헤엄치는 군부호전광들의 가스로운 처사는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군부호전광들은 한해전 연평도불바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고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번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적무장력은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대응할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추고있다.

주제 100 (2011)년 11월 24일 평양

최근 남조선에서 연평도사건발생 1년(11월 23일)을 계기로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불순한 소동이 광범적으로 벌어지고있다.

### 군사적도발을 추구하는 대결광대극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각 군종, 병종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이 감행되는 속에 《대전현충일》에서 《총리》와 유가족, 시민 등 3 000여명의 참가 밑에 그 무슨 《추모식》이란것이 벌어지고 연평도에서는 《전사자향상제막식》이니, 《민간인사망자추모비제막식》이니 하는 광대놀이판이 벌어졌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군부대들에 허탈한 《지휘서신》이라는 《연평도포격도발은 단순한 군지도발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도발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침략행위》라느니, 《지난 1년동안 적개심을 불태우며 이를 갈면서 속을 썩었다.》느니, 《적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원점을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구히 호전적인 폭언을 내뿜었다.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말하면 남조선

선호전세력이 북남관계를 전쟁점점으로 몰아가기 위해 공화국에 먼저 군사적도발을 감행한것으로 하여 산생된 사건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에 있다.

신성한 공화국의 령해수역에 대한 선불질이 없었더라면 애당초 연평도 불바다전은 없었을것이다. 도발자들이 징벌을 받은것은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를 계기로 벌려놓은 반공화국전쟁연습과 대결광대극은 조선반도정세를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용납 못할 도발책동이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호전적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연평도포격도발을 감행한것은 불법무도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서해해상에서 군사적충돌을 야기시켜 이 수역을 영인해 대결과 충돌의 마당으로 만들려는데있었다.

실질적으로 남조선당국은 연평도

포사적도발을 감행한후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주도적으로 전개할수 있도록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해병대무력을 대폭 증강하고 대포병태이다, 《K-9》자주포, 130mm로케트포, 공격용직승기 등 각종 전쟁장비들을 집중적으로 배비하여 이 일대를 새로운 북침공격기지로 요새화하는 한편 미군과 함께 이 일대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비롯한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았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남조선보수당국과 호전세력이 벌려놓은 전쟁연습과 대결광대극들은 제2, 제3의 연평도사건을 재현시키는데 필요한 군사적 및 정치적환경마련을 위한 대결광대극이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또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내외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10.26제보충선거를 전후하여 여지없이 드러난 집권말기위기를 수습하며 밀부리쳐 뒤흔들리고있는 동족대결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있다.

사실들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떠드는 그 무슨 《대북정책의 유연성》이니 뭐니 하는것이 순전히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뻔뻔스러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워서 벨은 침은 제 얼굴에 떨어지지만련이다. 죽은 아이 나이 세는 격으로 남조선당국이 《추모식》이니, 《제막식》이니 하며 광란적인 대결소동을 벌릴수록 도발자, 호전광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더욱 드러내보여 망신만 당하게 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제 다시 연평도에서 도발한다면 심전체의 혼적을 찾아볼수 없게 될것은 물론이고 무모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한대 대해 후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한강성

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 층에서 《6.15. 10.4선언의 완수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책임이다.》, 《10.4선언에는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민생해결의 길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대로 하루속히 서해를 평화의 바다, 남북이 공생하는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도 10.4선언의 정당성과 현실성, 유효성을 그대로 말해준다.

긴장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어있는 서해문제해결의 정확한 길은 바로 10.4선언리행에 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최근 남조선에서 정세가 첨예한 서해5도지역을 놓고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벌어지고있다.

### 서해문제해결의 길

이러한 속에 남조선군부는 그 무슨 《국지전도발》을 가사하여 증원되는 미군을 위해 백령도에 병영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거점으로 하여 다음 해부터는 서해해상에서 미군과 해병대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릴것이라고 한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서해5도지역에 《국제관광투구상》를 마련하여 이 지역을 평화통일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떠들고있다.

하나는 서해문제를 군사적으로 풀어보자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문제에 해결해보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은 다 서해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미군무력까지 끌어들이면서 서해지대의 평화가 가능할수 있을까?

총란한발도 전쟁발발의 불꽃으로 될수 있는 서해수역에서 미군과 남조선군이 대대적으로 연합훈련을 벌린다면 사태가 어디로 어떻게 번져질지 절로 가능성이 간다.

연평도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과 남이 지속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 서해수역에서 도발적인 포사격연습을 벌리던 과정에 발생한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점점으로 치달은 반면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주권》을 다시 거머쥐고 무장장비를 대대적으로 팔아먹으며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더욱 확보하였다.

철과 철, 불과 불이 부딪치면 전쟁밖에 불타오르는것이 없으며 그속에서 녹아나는것은 우리 민족자신뿐이라는것은 자명하다.

그렇기때문에 백령도에 미군병영을 건설한다는것은 위험천만한 계획으로 된다.

《국제관광투구상》이라는것도 그렇다.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금강산관광마저 중단된 오늘의 현실에서, 더우기 《북방한계선》이라는 불안정한 위험요소가 뻗어있는 서해지역에서 국제관광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 조선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로 알려진 이곳에 투자할 사람도 없을것이다.

관광이라는 돈벌이방법으로 서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것은 그대로 총과산탄 남조선 《정권》의 《대북정책》

인 《비핵, 개방, 3 000》과 일맥상통한다.

《국제관광투구구상》은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유해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유치한 발상이다.

미군병영건설을 진행해서 안되고 《국제관광투구구상》이 실현될수 없는 리유가 바로 이러하다.

그렇다고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지역을 언제까지나 시한폭탄처럼 안고있자는것이 아니다.

해법은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이다.

한마디로 남측이 말하는 서해5도를 포함하여 서해수역을 평화와 협력이 가능한 특별지대로 만들자는것이다.

우선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북남쌍방이 무력을 집중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기필코 총포소리가 울릴수밖에 없다. 군사적대대관계의 종식과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행할수 있는 기초조단계의 평화



### 제 2의 연평도포격사건을 불러오는 망동 규탄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물론 지원세력들을 포함한 각급 제대별지휘소들까지 타격하는 훈련》이라고 떠들어댄대 대해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군당국이 방대한 무력을 내몰아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1년 전 연평도포격사건때보다 가사한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단죄하였다.

호전세력이 이번 연습을 두고 《증강된 무력으로 북의 도발원점은

서해에서 대규모군사훈련을 련이어 벌리면서 서해 5도요새화의 명목에 섬들을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최근에는 공공연히 북침타격대상의 확대를 선포하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제2의 연평도포격사건을 불러오려는것을 확언해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지난 1년간 조선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군부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과 관련하여 2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87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23일 연평도포격사건 1년을 계기로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합동참모본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종, 병종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하면서 피뢰패당이 연평도와 대진 등지에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배인 인간쓰레기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돈과 물건 짝으로 매수하여 모아놓고 그 무슨 《추모식》이니, 《추모비제막식》이니 뭐니 하는 광대놀음을 벌리면서 대결의식과 전쟁열을 악랄하게 고취하였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피뢰군부대들에 허탈한 《지휘서신》이라는것을 지난해 하투강까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연평도에서 우리에게 도발을 걸었다가 되게 얻어맞은것이 너무도 분통하여 《지난 1년동안 적개심을 불태우며 이를 갈면서 속을 썩었다.》느니,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판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전적망동이며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지난해에 있는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말하면 대결에 환장하고 도발에 피눈이 된자들의 선불질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먼저 한것도 피뢰패당이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 더욱 호전적으로 대담해나선것도 피뢰군부대거리들이다.

이 세상에 자기 집 마당에까지 불질하는자들을 가만히 둘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도발자들이 징벌을 받은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앞으로도 도발을 감행하고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큰 오산은 없다.

보도는 지금 피뢰패당의 속통에는 오직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우리와 끝까지 엮서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려는 흥심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뢰호전광들이 또다시 연평도에서 불질한다면 지난해에 비할수 없는 우리 군대의 무자비하고도 섬멸적인 타격으로 섬파위가 흔적도 없이 날아나버리는것은 물론 적아성까지 재가루가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보도는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자들에게 차레질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라고 하면서 피뢰패당이 제2, 제3의 연평도약동이 되살아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리석은 망동을 걸어치워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본사기자

### 《보안법》이 빚어낸 비극

엄마의 동무에게 안기여 면회실로 들어서는 첫머리 어린이, 푸른 수의를 입고 나란한 셋머이 어머니, 안간힘으로 간막이를 두드리며 엄마를 애래게 찾는 아기모습에 곡성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 얼마전 남조선 서울구치소에서 펼쳐진 비극적모습이다.

어머니에게 안기여 한창 재물을 부려야 할 셋머이아가가 죄인을 취급하는 구치소에 어머니를 만나고 또 생애를 당해야 하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비참한 광경은 《보안법》이 빚어낸 비극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 보수당국은 셋머이 어머니인 김은혜녀성이 처녀 시절 《북과 접촉》하였다 하여 그것을 문제삼아 《보안법》에 걸여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한피줄을 나는 동포형제들을 만나 북남공동선언리행문제를 협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의지를 표시한 애국적활동을 범피시하며 탄압한것은 민족의 자주통일의식은 물론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률에도 모르는 무뢰한들의 욕구이다.

둘이해보면 6.15시대가 막을 연후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어 통일을 넘나하는 민족의 지향에 맞게 좋게 발전하여왔다. 북남사이에 오래동안 쌓였던 대결과 불신의 감정이 해소된 가운데 하늘, 땅, 바다길이 열리고

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등을 망라하는 여러 분야의 접촉들이 진행되었고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김은혜녀성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6.15대학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정력을 강그리 바쳤다.

그의 활동은 다음이년 북남사이에 합의된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진행됨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것이 없었다.

더우기 이전 《정권》시기 당국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끌려갔다. 한피줄을 나는 동포형제들을 만나 북남공동선언리행문제를 협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의지를 표시한 애국적활동을 범피시하며 탄압한것은 민족의 자주통일의식은 물론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률에도 모르는 무뢰한들의 욕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무지막지한 파쇼적 탄압에 매달리는것은 사회진반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말살함으로써 심각한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집권연장을 실현해보려는 흥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대내외적통치위기에 벗어나려고 서슬푸른 《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개혁세력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 《자유무역협정》은 침략과 매국의 합작품

##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정치폭거

지난 22일 남조선에서는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이 야당과 각계층의 거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강행통과시킴으로써 친미사대정권의 정체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이날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은 야당세력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버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적, 반민족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은 리득을, 남조선은 손해만 보게 된다. 값싼 미국산 잉어농산물로 하여 남조선농업이 황폐화되는 것은 두말할것없고 중소기업들은 수출경쟁에서 밀려 파산할락하게 된다. 미국이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남조선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기에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21세기 을사조약》이라고 단죄규탄하면서 초발투쟁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항의투쟁을 매일 같이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당》 보수세력들은 인민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강행통과시킴으로써 친미사대정권의 정체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따지고보면 《한나라당》은 집권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 한번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적이 없이 모든 《정책》들을 친미를 기준으로 삼아 독단과 쿠데타의 방법으로 강행해왔다.

2008년 집권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부터 친미자세, 대미굴종의식을 보여준 보수집권세력은 2010년의 《진실적전통계권전환》 연기를놓음으로 미국에 대한 《충성》을 다시금 확약하였다.

얼마전 10대의 녀학생을 성폭행한 남조선장검 미군이 속한 부대에 당국자의 명의로 축하까지 보내는 정도이니 보수집권세력의 친미굴종의식이 어느 정도인 가 하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에는 그렇게 고분고분하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인민들에게는 어떤 악정을 감행해왔는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효된 반값등록금공약, 1 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420만대의 실업자, 무리로 파산되고있는 중소기업들, 《자살공

화국》, 이것이 보수집권세력에게 남조선인민들에게 준 《혜택》이다. 이것도 모자라 보수집권세력은 이번의 폭거로 인민들의 생존권까지 미국에 팔아먹었다.

보수집권세력이 《선비준, 3개월후 재협상》이라는 오그랑수까지 내걸고 왜 그토록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타아하였는가에에는 그들대로의 유희한 속심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새해부터 발효되어 3개월후이면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다.

또 그 여파가 가라앉을새없이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전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남조선전역이 새로운 정치소용돌이에 휘말리는 2012년에 가면 《재협상》론의는 그대로 모래에 뿌린 물처럼 잿아들고 다음 《정권》이 걸머져야 할 부담으로 남는다.

두차례의 선거전에서 보수세력이 바라보는것은 미국의 지지이다.

미국의 후원을 받아야 선거에서 이길수 있고 《정권》을 잡을수 있다는것이다.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의 유력한 후보까지 나서서 이번 날치기통과에 한몫했다는것은 다 이런 이유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보수집권세력은 오산하고있다.

비준안의 날치기통과는 제 목에 걸린 바늘을 제 손으로 더 조이는 결과를 가져왔을뿐이다.

올해 10.26재보선선거가 보여준것처럼 남조선인심은 다음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보수집권세력을 심판할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비준안이 통과된 그날은 《치욕의 날》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 무리들을 《나라를 팔아먹고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낙인하고 《리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기멸고 심판하고 박살낼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독주를 기억하고 심판할것》이라고 저주와 규탄을 표시하고있으며 비준안의 원천무효를 위해 시위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 각지에서 더욱 세차게 타번지는 투쟁의 초물바다는 친미매국노의 무리, 보수집권세력을 송두리채 매장해버리고야 말것이다.

김철명

11월은 우리 겨레의 뇌리에 두고두고 침략과 매국의 협정문서로 각인찍혀온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6년이 되는 달이다.

이 치욕의 달에 남조선에서는 《현대판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매국협정이 《국회》에서 뼈저리 통과되었다.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된 전과정을 보면 신동호도 력사에 치욕을 남긴 《을사5조약》 남조과정과 거의 일맥상통하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세력들은 협정을 반대하는 야당세력들의 반발이 두려워 수 많은 경호원들로 《국회》 본회의장을 겹겹이 봉쇄하여 심한 경비진을 쳤다.

그리고 머리가 많은 저들의 수적우세를 리용하여 야당원들의 동의도 없이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하였다. 백주에 강행된 날치기강행처리는 그야말로 매국노들에 의해 감행된 《현대판 을사조약》 날조놀음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날치기로 통과된 《자유무역협정》이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리익만이 담겨진 매국협정이라는 데 있다.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져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도

조항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보면 남조선이나 미국의 어느 한 투자자가 무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당국이 아닌 국제기구에 분쟁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다. 얼핏 보기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제 3자에게 분쟁문제해결을 요청하

《한미FTA는 명백하게 미국의 리익을 위한 굴욕적인 협정》,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한미FTA비준은 제 2의 을사5조약》, 《한나라당과 리명박대통령은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단호히 규탄배격하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보수당국은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3개월후에 재협상할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남을 해쳐 제 리익만 채우는 미국이 수 년간에 걸쳐 타락정권을 다시 저들에게 불리게

계 손해자고 할리 만무하다. 더우기 미국을 하대비처럼 여기면서 상권의 요구를만 들어놓고 받아부는데 습관된 현 친미 보수당국이 재협상을 하여 독소조항을 고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최근에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업체에서 써준 연설문을 그대로 미국국회에서 읽은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앵무새》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친미매국기질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남조선시장과 인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채 미국에 팔아먹은 현 집권세력은 두고두고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성남

을 가지었다.

민주로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산하 지역별단체들은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도처에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중의 생존권과 직접 련관된 문제를 민중과의 합의를 없이 날치기 처리한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반역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전체 민중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 산천로복도 분노할 일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금할수 없다.

나는 공화국의 전체 농업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남조선 농민들의 명줄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슴없이 끌어어놓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폭거를 반민적,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단호히 규탄한다.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농사는 세상에서 제일 기본으로 되는 큰일이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일러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인민들의 생존에서 기본인 농업을 통째로 파괴하려 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이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킴으로써 미국산 잉어농산물이 마구 쏟아져들고 남조선농업은 멀지 않은 앞날에 황폐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쌀시장전면개방으로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목숨을 이어오던 남조선 농민들에게 있어서 비준안통

과소식은 그대로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은것이나 다를 바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식탁에는 제땅에서 나온 쌀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해묵은 농산물이 오물것이며 거스르자마자 상전이 기분이 거슬려 주지 않으면 인민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게 된다. 이 나라 산천로복도 분노할 일이 아닐수 없다.

입만 벌리면 《서민생활》을 운운하던자들이 인민들의 생존권까지 강탈하여 미국에 넘겨버린 매국매국충취는 두고두고 결산되어야 한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저장 박영순

사대매국적인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날치기로 강행한 친미보수당국을 규탄하는 투쟁이 23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벌어졌다.

서울시청앞광장에서 《한나라당》의 독재적당풍을 단죄하는 초물집회가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범국민운동본부와 야당정당들, 각종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 굴욕협정을 날치기처리한 《한나라당》 해체하고 반역정권 퇴진시키자

남조선 전지역에서 반 《정부》 투쟁 전개, 서울에서 1만여명 참가

집회참가자들은 불법적으로 처리된 협정비준동의안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에 나섰다.

그들은 파쇼경찰들이 물대포를 쏘아대고 련행에 날뛰는 속에서도 시내 곳곳에서 시위투쟁을 벌이며 기세를 올렸다.

이날 남조선 각지에서 《한나라당》 해체, 《정권》 퇴진의 합성이 터져나왔다.

대구, 대전, 울산, 전라북도, 남조선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이 규탄집회와 기자회견들

을 벌였다.

이날 남조선 각지에서 《한나라당》 해체, 《정권》 퇴진의 합성이 터져나왔다.

대구, 대전, 울산, 전라북도, 남조선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이 규탄집회와 기자회견들

## 말 주어가 빠졌다

11월 22일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후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남조선의 인터넷에는 《주어가 빠졌다.》며 그에 대한 반박글들이 무수히 올랐다.

— 《(미국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돈많은자들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자본과 대기업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MB 정권의) 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보다는 우리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을 보실겁니다.》...

말 주어가 빠졌다

11월 22일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후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남조선의 인터넷에는 《주어가 빠졌다.》며 그에 대한 반박글들이 무수히 올랐다.

— 《(미국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돈많은자들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자본과 대기업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MB 정권의) 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보다는 우리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을 보실겁니다.》...

말 주어가 빠졌다

11월 22일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후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남조선의 인터넷에는 《주어가 빠졌다.》며 그에 대한 반박글들이 무수히 올랐다.

— 《(미국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돈많은자들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자본과 대기업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MB 정권의) 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보다는 우리의 리)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을 보실겁니다.》...

## 현대연합하여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남조선의 야당세력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국회》에서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것을 반대하여 론평들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19대 국회에는 반드시 다수의석을 만들어 ISD패기, FTA를 바로잡을것》이라며 《이번에는 야당의 힘이 부족해 못 막았지만 함께 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인사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도 《국회에

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복원하려면 여야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것이 중요하다.》며 《야권통합을 통해 힘의 균형이 무너진 의회권력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개혁세력통합에 합류한 《한국로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1%만을 위한 정당,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비공개날치기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땅의 모든 량심세력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로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각종층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 무효, 야당-한미자유무역협정

지 범국민운동본부 정당연설회》가 진행되었다.

령하의 날치기에서도 이들은 대화결의문을 통해 《리명박-한나라당정권이 끝내 제 버릇 개 못 주고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말았다.》며 《우리는 한 줌도 안되는 수출재벌들의, 그것도 쥐꼬리만금도 안되는 리익을 위해 농업과 축산업을 송두리채 개방해 다수 국민의 회생을 강요하는 그따위 협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당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합심해서 지금부터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날치기에 동참한 의회쿠데타세력, 반민주세력을 배낸 총선에서 전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층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 무효, 야당-한미자유무역협정

지 범국민운동본부 정당연설회》가 진행되었다.

령하의 날치기에서도 이들은 대화결의문을 통해 《리명박-한나라당정권이 끝내 제 버릇 개 못 주고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말았다.》며 《우리는 한 줌도 안되는 수출재벌들의, 그것도 쥐꼬리만금도 안되는 리익을 위해 농업과 축산업을 송두리채 개방해 다수 국민의 회생을 강요하는 그따위 협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당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합심해서 지금부터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날치기에 동참한 의회쿠데타세력, 반민주세력을 배낸 총선에서 전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층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 무효, 야당-한미자유무역협정

## 매국 《국회》에 던져진 최루가스 《폭탄》

얼마전 남조선 《국회》에서는 세인의 이목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적으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려 하자 한 야당의원이 의정석에 최루가스류를 뿌린것이다. 하여 회의장안은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소리로 가득차고 《한나라당》 출신 부의장이 의정석에서 긴급히 피난하는 등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독재매국에 맞선 의거》, 《회

루탄을 터뜨린 김선동의원은 영웅》 등 그를 지지하는 글들이 련속 뜨고있다.

이러한 대중의 평가는 우연한것이랄 수 없다.

력사를 뒤돌아보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에게는 언제나 정의의 무서운 철구가 뒤따랐다.

일제의 조선침략의 피수인 이도 히로부미가 안중근 렬사의 총탄에 맞아 황천개이 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식민지조선의 예

국정년이었던 리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복수의 수류탄벼락을 안겼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을 찬성해나선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들에게 겨레와 렬사가 어떤 징벌을 내렸는지도 잘 알려져있다.

이번에 남조선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국과 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미국과 소수 투권층만의 리익을 위한 매국협정, 제2의 《을사5조약》이다. 하기에 남조선각계가 이 협정의 비준을 강력히 반대배격해나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관 매국노들이 미국의 립장에서서 협정을 끝내내 통과시키려고 날뛰었으니 민족의 피가 뒤는 사람치고 어찌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수 있으며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었겠는가. 최루가스류를 뿌린 김선동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최루가스가 아니라 폭탄이라도 던지고싶은 심정이었다고 분노를 토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김선동의원이 던진 최루가스 《폭탄》, 그것은 단지 그 개인이 던진 《폭탄》이 아니라 파쇼매국노들을 징벌하려는 남조선인민의 증오의 폭탄이다.

그 《폭탄》에 얻어맞은것은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한나라당》의 원로들이 아니라 매국과 파쇼를 발명해 하는 색은 《한나라당국회》이고 파쇼 《실용정부》이다.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이 오늘에는 최루가스를 선사받았지만 두차례의 선거가 진행되는 다음에는는 진짜 민심의 무서운 징벌을 받고야말것이다.

주광일

이번에 남조선 《국회》에서 통과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는 독소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 몇가지 조항의 내용들을 보자.

— 《지역재산권의 직접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소유자가 국내에서처럼 남조선에서도 자기의 모든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미국특허권소유자는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권을 가지게 되며 남조선기업이나 주민은 미국특허권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것은 보건의약인데 남조선의 제약회사들은 지금처럼 특허보호기간이 지난 미국의 기술을 리용하여 값싼 복제약들을 생산판매할수

없게 되는것은 물론 미국에 막대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것으로 하여 약값이 대폭 뛰여오르게 되어있다.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은 병이 나도 약 한합 사먹을수 없게 된다.

— 외국인인 주식소유비율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조항

통신, 전력, 가스, 음료수공급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분야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특혜관세를 철폐할수 있게 한 조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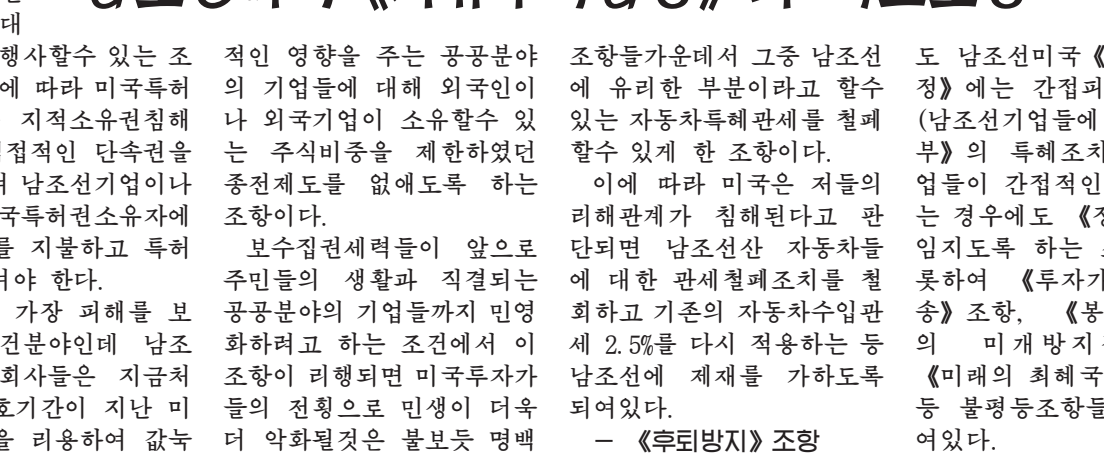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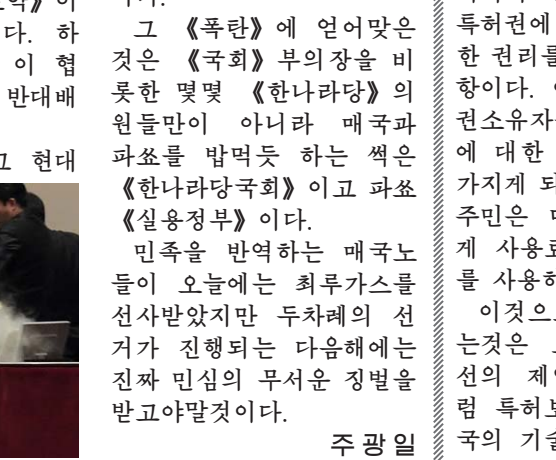
이에 따라 미국은 저들의 리해관계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남조선산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철폐조치를 철회하고 기존의 자동차수입관세 2.5%를 다시 적용하는 등 조항이 리행되면 미국투자자들의 진행으로 민생이 더욱더 악화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리아의 상수도운영권을 사들인 미국 기업이 1주일만에 수도물값을 종전보다 4배나 올려 주민들이 생활에서 큰 타격을 받은 일도 있다.

— 《협정블리행에 따른 자동차특혜관세철폐》 조항

남조선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조금이라도 리행하지 못할 경우 《자유무역협정》 조항들가운데서 그중 남조선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특혜관세를 철폐할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저들의 리해관계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남조선산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철폐조치를 철회하고 기존의 자동차수입관세 2.5%를 다시 적용하는 등 조항이 리행되면 미국투자자들의 진행으로 민생이 더욱더 악화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금강산의 옥류동

본사기자 심용석 찍음

# 조선 8경의 하나—부전고원

우리 나라의 지형에서 지붕을 이룬 개마고원에 자리 잡고있는 명승지 부전고원! 함경남도 부전군에 있는 이 고원은 한가운데 드넓은 부전호가 우거진 숲과 대조를 이루며 바다처럼 펼쳐져 있어 산지풍경에 호수풍경까지 결합된 뛰어난 절경으로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명승지이다.

부전고원의 면적은 1770km<sup>2</sup>(약 18만정보)이고 평균높이는 1490m이다. 고원의 변두리에는 북수백산, 차일봉을 비롯하여 2000m를 넘는 산봉우리들이 10여개나 솟아있다. 해발고가 높기때문에 제일 더운 7, 8월의 평균기온도 17℃로서 늘 서늘하다.

부전고원의 식물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특이하다. 여름철의 무연한 고원과 습지들은 부채꽃, 모자꽃, 송피리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꽃들이 피어있다. 이 꽃들은 높은 지역에만 피는 꽃들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여름부터 이 일대의 자연경치는 고지대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부전고원은 경제적으로가

치가 있는 여러가지 자연부원들을 가지고있어 실로 자랑많은 고원으로 되어있다. 남북부전령의 북쪽기슭에는 무연하게 펼쳐진 들쭉밭이, 북부지역에는 드넓은 들배밭이 있다. 특히 부전고원에는 산나물이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일대에는 먹음직하게 실하게 자라는 고사리밭과 산파밭이 있는가 하면 산마늘밭이 있다. 또한 부전고원에는 수십종의 약용식물이 있는데 그가운데는 평지대에서 자라지 않는 천궁, 대황, 고본 등을 비롯하여 당귀, 단삼 등이 있다.

부전고원의 우거진 숲속에는 벌을 비롯하여 표범, 늑대, 곰, 매미지 등의 맹수들과 사슴, 노루, 수달 등 여러가지 동물들도 많다. 이런것들로 하여 부전고원의 고산풍경은 참으로 볼만 하다.

부전고원에 대하여 말할 때 부전호를 빼놓고 말할수 없다. 부전고원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부전호는 압록강쪽으로 흘러내리는 부전강물줄기를 막아 만든 인공호이다.

부전호는 사철 흰눈이 덮인 높은 산과 천연수림이 울창하게 들어선 넓고 깊은 골짜기를 막아 만든 고산지대의

저수지이므로 어느때나 물이 얼음같이 차고 수정같이 맑고 고요하여 보기만 해도 차디찬 감을 주는 호수이다.

전달대가 만발한 호수의 봄풍경과 단풍이 울긋불긋한 가을풍경도 좋지만 그래도 여름경치가 그중 제일 좋은 풍경이라고 할수 있다. 바다같이 넓은 호수물면에 이질나뭇수의 그림자가 드리워 시원한 고원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여름철의 호수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여기에 이곳을 찾는 휴양생, 야영생, 탐승객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호반에 넘쳐나는데 그 아름다움은 참으로 이채롭다.

겨울철에는 이 호수가 그대로 스케이트장으로 되어 흥성거린다. 이처럼 특이한 고원풍경을 가지고있는 부전고원은 휴양지, 야영지, 탐승지로서 초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휴양생들과 학술적탐사를 위한 대학생들이 수많은 이곳을 찾아오른다.

오늘 부전고원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사회주의선경으로 빛나는 조국의 자랑높은 명승지의 하나로 이름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① 압록강 백두산남쪽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면서 조선서해로 흘러든다. 길이 803km, 류역넓이 6만 4 739.8km<sup>2</sup>이다. 압록강은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자성강, 장자강, 충만강, 삼교천을 비롯하여 100km를 넘는 여러개의 하천들과 그밖의 많은 가지호수를 가지고 있다.

② 두만강 백두산의 남동쪽 부두봉 동북쪽기슭에서 시작하여 소흥단수, 서두수, 연변수, 성천수, 오통천 등 280여개의 지류를 합해가지고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와의 국경을 따라 조선동해로 흘러든다. 길이 547.8km, 류역넓이 3만 2 920km<sup>2</sup>로서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강이다. 물살이 빨라 수십만kw의 발전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열목어, 산천어, 송어, 황어 등 40여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③ 랑동강 랑남지방을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긴 강으로서 삼랑강이라고도 불렀다. 랑동강은 태백산북쪽에

있는 함백산(1 573m)남쪽비탈면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경상남북도를 지나 부산시 서부정계를 따라 조선남해에 흘러든다. 길이 523.2km, 류역넓이 2만 3 370km<sup>2</sup>, 반반천, 미천, 내성천, 영강, 위천, 감천, 금호강, 황강, 남강, 밀양강을 비롯하여 가지호수만도 22개나 된다.

④ 한강 우리나라 중부지대를 흐르는 강으로서 네번째(류역넓이에서 두번째)로 긴강이다. 강원도(남) 삼척군 대덕

산에서 시작하여 정선, 영월, 단양, 충주, 중원, 러주, 양평, 서울, 김포지방을 지나 조선서해의 강화만으로 흘러간다. 길이 502.8km, 류역넓이 3만 4 395.7km<sup>2</sup>이다. 주요가지호수는 덕천군 남양일대에서 흘러드는 마란강, 성천군 대양일대에서 흘러드는 비류강,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과 평천구역일대에서 흘러드는 남강과 보통강, 황해북도 송림시, 황주군 철도리일대에서 흘러드는 황주천, 채령강 등이다.

⑤ 대동강 평안남도 대흥군 망림산(2 186m)과 한태령에서 시작하여 조선서해로 흘러가는 강

이다. 하류는 황해남도 은룡군과 남포시와의 경계를 이룬다. 길이 450.3km, 류역넓이 2만 247km<sup>2</sup>이다. 대동강에는 길이 15km이상 되는 제1가지호수가 26개, 제2가지호수가 29개, 길이가 5km이상 되는 하천은 388개가 있다. 주요가지호수는 덕천군 남양일대에서 흘러드는 마란강, 성천군 대양일대에서 흘러드는 비류강,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과 평천구역일대에서 흘러드는 남강과 보통강, 황해북도 송림시, 황주군 철도리일대에서 흘러드는 황주천, 채령강 등이다.

본사기자

## 우리 나라의 5대강

고추는 B.C. 7천년전경부터 메히고, 페루 등 아메리카 중남부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어 조미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17세기초엽에 고추가 들어왔는데 리조시기의 실학자인 홍만선이 편찬한 《산림경제》에 고추 재배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리조시기 판료이며 실학의 선구자였던 리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고추에 대해 외국에서 들어온 작물이라 하여 왜겨자 또는 왜개조, 남만초 등으로 기록되어있다.

《지봉유설》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고추는 초기 주막집마당에서 조금씩 재배하여 고추술을 만들어 팔거나 겨울에 먼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배피와 버선에 자극제로 넣어 피순환을 좋게 하여 추위를 막고 동상을 예방

하는데 리용하였다고 한다. 고추는 그 특유한 매운 맛 때문에 문학작품들에서 시집살이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지방에서는 《시집살이 개집살이/알밭에는 당추심고/뒤밭에는 고추심어/고추당추 맵다 해도/시집살이 더 맵더라》는 민요가 전해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고추를 약재로도 많이 리용하여왔다. 옛 문헌들에는 고추는 《음식이 오래동안 잘 안내려가는것을 제거하고 기가 멎쳐있는것을 풀어주며 입맛이 돌아나게 한다.》, 《동상은 고추달인 물로 씻으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은것을 잘 내려가게 해주며 풍을 제거하고 땀이 나게 하고 땀기가 오래 쌓인것을 없애며 담을 씻어내고 체액의 농도가 탁해지는것을 조절해준다.》고 기록되어있다.

특히 민간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감주나 소주에 고추가루를 타서 마시곤 하였다.

이러한 고추가 식품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것은 17세기 후반부터였다. 풋고추에는 비라민이 다른 남새에 비해 특별히 많아 여름철 건강식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 고추를 기름에 볶으면 비라민A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사과 50배, 꿀의 2~3배에 해당된다고 한다.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은 항산화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며 마취진정효과도 있다고 한다. 또한 혈전용해작용을 하기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속의 콜레스테롤수치를 감소시키며 동맥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을 예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량을 섭취하는 경우 위점막이 상하게 되므로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

본사기자

《고בל》 고בל은 원래 코와 불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로서 감기에 걸리면 코에서 불이 나는것처럼 더운 기운이 나고 하여 감기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논시울》 시울은 원래 고기배가 장자리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그후 길게 라원형으로 생긴 배의 가장자리가 마치 눈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논시울이라고 한다고 한다.

《도무지》 도무지는 리조시기에 있었던 일종의 형벌이었는데 물을 묻힌 조선종이를 얼굴에 여러겹으로 붙여놓으면 종이의 물기가 말라감에 따라 서서히 숨이 막혀 죽게 된다고 한다.

끔찍한 형벌에 기원을 두고있는 도무지는 그 형벌만큼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있다.

본사기자

《(뒤)바라지》 바라지란 절에서 극락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남)을 비는 의식인 재를 할 때 불도를 가르치는 중인 법주스님을 도와 목탁을 치고 경문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들을 거들어주는 중을 말한다.

바라지스님이 이처럼 자질구레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해준다는데서부터 《뒤바라지》, 《육바라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명령구리》 명령구리는 원래 바다물고기의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고기는 못생기고 동작이 몹시 굵어 아무리 위급한 때에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은 판단력이 없어 뽕고름을 제대로 분별할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 민족의 자랑

우리 조상들이 남새를 재배하고 김치를 담그어먹기 시작한것은 고구려이전시기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사자료들에는 이미 고구려이전시기에도 김치담그는 방법과 같이 소금으로 절여서 먹는 것 같음식이 있었고 고구려시기에는 무우를 절이고 김장을 담그어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배추나 고추를 재배하지 않고 무우나 부추를 기본남새작물로 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김치는 무우와 여러가지 산나물을 주재료로 하여 소금이 절인것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이 시기의 김치는 김치가 아니라 남새를 소금이 절인것이라는 뜻에서 침채 또는 침장이라고 불렀다. 침채나 침장이 언제 어떻게 되어 오늘의 김치로 통칭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옛날에

는 한 시기 김씨가 많이 집권하면서 당시의 왕이 자기의 성 김씨를 따서 김치로 고쳐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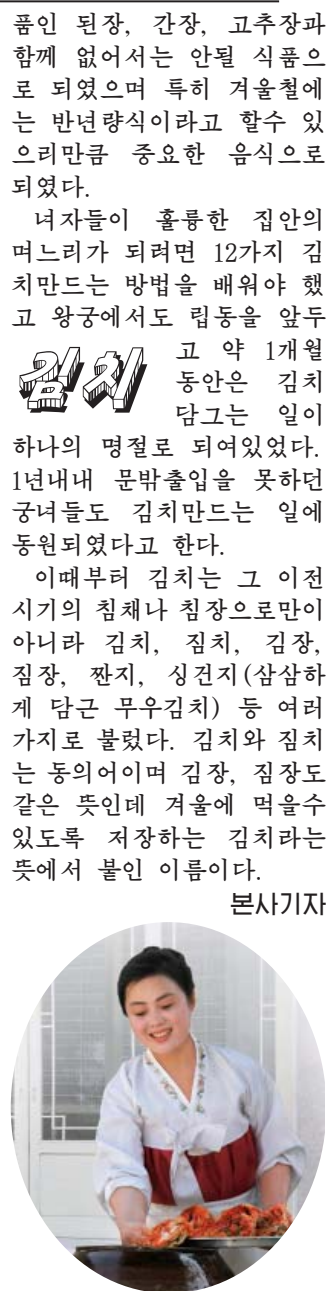
김치만드는 방법이 발전하고 그 종류가 다양해진것은 배추와 고추가 우리 나라에서 서 재배되기 시작한 17세기 중엽인 리조시기부터인것으로 전해지고있다. 17세기자료에는 34종의 김치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있으며 18세기부터는 총각김치, 참나물김치, 동치미, 톱김치, 백김치, 보쌈김치, 갓김치, 깍두기, 무우청김치, 박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오이김치, 숙것김치, 미나리김치, 물김치, 가지김치 등 60여가지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 시기부터 김치는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의 하나로, 3대저장발효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식품으로 되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반년량식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만큼 중요한 음식으로 되었다.

너자들이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12가지 김치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했고 왕궁에서도 림등을 앞두어 김치 담그는 일이 하나의 명절로 되어있다. 1년내내 문밖출입을 못하던 궁녀들도 김치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김치는 그 이전 시기의 침채나 침장으로만이 아니라 김치, 짐치, 김장, 짐장, 찐치, 싱진치(삼삼하게 담근 무우김치) 등 여러가지로 불렀다. 김치와 짐치는 동의어이며 김장, 짐장도 같은 뜻인데 겨울에 먹을수 있도록 저장하는 김치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요리인 김치를 가진 김치

생강을 오래 두고 먹으려 하면 생강의 껍질을 벗겨서 15~20%의 소금물에 식초와 당분을 섞어 절여둘 수 있으며 얇게 편을 내어 사탕과 함께 끓여서 당침하여 둘수 있다. 이 방법은 맛과 향기를 보존하는데서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얇게 편을 내어 말리워서 보관 할수 있으며 가루를 내어 들수 있다.

본사기자

《생강을 오래 두고 먹으려 하면 생강의 껍질을 벗겨서 15~20%의 소금물에 식초와 당분을 섞어 절여둘 수 있으며 얇게 편을 내어 사탕과 함께 끓여서 당침하여 둘수 있다. 이 방법은 맛과 향기를 보존하는데서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얇게 편을 내어 말리워서 보관 할수 있으며 가루를 내어 들수 있다.

본사기자

## 단편 소설

## 약

## (3)

×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 되지 않았겠는지... 아니, 은숙의 생활게도에선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그때 이미 그제전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은숙에게서 편지가 왔다. 은숙의 편지를 보면 그가 대학생활에 얼마나 큰 공기를 느끼는지, 그의 생활이 얼마나 회려했고 방만에 넘쳐있는지 알수 있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자기들의 현재생활뿐아니라 미래의 꿈에 대하여, 희망찬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청춘의 방만을 담은 편지들이었다. 하지만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

은숙은 방학때 내가 재래되어 배치된 이 도시로 오곤 하였다. 고향이 남반부인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아니,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왔다고 나

글 배경휘, 그림 김윤일

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나는 역으로 마중나가군 했는데 기차에서 내리는 그를 볼 때면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던지 그때의 흥분과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반가와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나와 같은 열정, 구김살없는 순진한 기쁨의 분출은 없었다. 지내 내성적이라고 할가, 지나치게 자제한다고 할가... 무엇보다도 서름서름한것이 우리 사이에 개선을 낳고있었다.

나는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고있는 심정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의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결심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반가와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나와 같은 열정, 구김살없는 순진한 기쁨의 분출은 없었다. 지내 내성적이라고 할가, 지나치게 자제한다고 할가... 무엇보다도 서름서름한것이 우리 사이에 개선을 낳고있었다.

드디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있는 도시의 의사로 배치되어왔다.

상봉의 기쁨을 안고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거닐었다.

서쪽하늘에선 노을이 붉게 났고 부드러운 미풍이 우리의 얼굴을 시원하게 어루만져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뒤끝에 나는 말하였다.

《은숙동무, 동무만 반대했다면... 우리 결혼하지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떨군 그의 얼굴은 웬 일인지 심각하게 굳어져있었다. 녀자가 남자의 청혼에 선뜻 응하기 어려워할수도 있었지만 처음 만난 우리가 아닌만큼 그의 그러한 태도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리위해왔다고 믿어왔었고 서로 힘이 된다고 확신했었다. 나는 은숙이 없는 자기의 생활을 상상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

《왜 그러오?》 나는 의아히, 조심스레 물었다.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게 있소?》

강물이 가볍게 철썩이는

소리뿐 사위는 고요한데 멀리서 배고동소리가 들려왔다.

이윽하여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늘한 시선을 강 건너 멀리 회피하게 보이는 산쪽에 던지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예전 아들이 있어요. 저 남쪽에... 늙으신 시어머니가 손자를 메리고 저를 기다리고계세요.》

너무도 뜻밖의 말이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멍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떠들떠들 물었다.

《아버지도 남쪽에 있소?》

《아버지는 전쟁전에 남쪽에 학살되었어요.》

《...》

그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는가?

그가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중대장동지, 지금까지 지내어온것처럼 그렇게 지낼수 없을까요? 진실한 우정으로?...》

《...》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뭐라고 하겠는가. 머릿속에선 《아들》, 《시어머니》하는 말들이 맴돌아왔다.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해도... 나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소.》

그리고 불을 토하듯 부르짖었다.

《동무의 아들도, 시어머니도 우리모두 한가정이 되면 될게 아니요?》

은숙은 눈물이 그렁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장동지, 우리 이전처럼 지내자요, 예?》

그 대답은 이미 부정적으로 주어졌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순응할수 없었다. 그것은 은숙의 내에 대

피로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가슴이 활활 타올라 견딜수 없었다.

우리는 묵묵히 걸었다. 사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철썩이는 물소리만이 단조롭게 무엇인가 없없이 이야기하고있었다. 배에서 비치는 불빛인듯 멀리 수면에서 무엇인가가 번쩍거렸다.

불타는 마음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출로를 찾았으나... 출로는 없었다. 출로는 은숙의 대답이었는데

한 감정을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가? 아들, 시어머니? 희생된 남편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상 무슨 문제될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은숙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왜? 왜? 그러던중 불현듯 머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희생된 남편에 대한 추억, 머리를 기다리고있을 시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감과 죄의식... 그것이 그에게는 넘을수 없는 장벽으로 될수 있다는것이였다. 비로소 나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느껴지던 그 서름한것이 무엇이였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러서기에는 나의 심정이 너무도 세차게 고통쳤고 나의 피가 너무도 뜨거웠다. 더 다가서지는 못해도 물러설수는 없었다.

《약속하지요?》

은숙의 물음이었다.

《음-》

나는 갈린 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은숙이 속삭였다.

고맙다구, 무엇이? 내가 자기를 리해해주어서? 과연 그는 내가 물러설것을 바라는가? 나의 이 어정쩡한 태도에서 위안을 느끼는가? 내가 바란것은 그런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 서로 힘을 주고 기쁨을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고통을 주고있었다. ...

무정한 강물은 장난질하듯 단조롭게 철썩이듯 쉽게 흘러가고있었다. 서늘한 강풍이 불어왔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시내 쪽으로 향하였다.

《우리 매일 영화구경을 갈까?》

내가 불쑥 꺼낸 말이였다. 무엇보다은 우리의 마음에 드리운 그늘을 지워버리고 싶은 몸부림이였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가자요.》

그가 선뜻 찬성해나서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것 같았다. 어둡숙이지만 그의 얼굴도 한결 밝아진듯싶었다.



본사기자